



공임쌀집 2층서 시작된 4·3진상규명 서른 해

제주4·3연구소 30주년 맞아
이달 27일부터 특별전 개최
'4·3의 정명은 가능한가' 등
성과와 과제 짚는 세미나도

30년 전, 제주시 용담동 공임쌀집 2층에서 그들의 걸음이 시작됐다. 세상은 여전히 그 날의 비극을 꺼내놓는 걸 반기지 않던 때였다. 창립 첫 해 나온 두 권짜리 증언채록집 '이제 사 말할수다'는 그 표제만으로 살벌했던 시대를 짐작하게 만들었다.

1989년 5월 10일 문을 연 제주4·3연구소, 순수 민간연구단체로 서른 해 한길을 걸어온 그들의 발자국은 그대로 4·3진상규명운동의 역사가 되었다. 구술채록, 역사기행, 자료 발굴,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통해 4·3의 진실을 알려왔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



제주4·3연구소는 서른 해를 걸어오며 4·3진상규명 운동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사진은 지난해 4·3 역사기행.

장 허영선)가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달 27일 4·3평화기념관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고 같은 날 특별전 개막식을 치른다.

이번 세미나는 4·3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주4·3연구 3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열

린다. 김영범 대구대학교 교수의 '비원과 기억-4·3'의 정명은 가능한가'에 대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박찬식 4·3연구소 이사가 사회를 맡아 '제주4·3과 사료' (허호준, 한겨레 선임기자), 제주4·3과 구술채록(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제주4·3과 평화기행(오승국, 제주4·3평

화재단 총무팀장), 제주4·3과 지역운동(강남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이사장) 주제 발표가 잇따른다.

특별전은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마련된다. 개소식 장소인 공임쌀집 2층을 재현한 공간으로 들어서면 4·3연구소 서른 해의 기억과 기록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구성한 전시가 펼쳐진다. 1989~1999년과 2000~2019년 주요사업, 유해발굴과 증언본풀이 자료, 영상 코너 등을 선보인다. 시대별로 발간된 4·3책자와 보고서, 구술증언 테이프, 행사 포스터 등도 볼 수 있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4·3연구소에 바란다'도 준비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한 세대의 여정을 모아 내놓는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온전히 앞으로도 해원해야 할 4·3의 진실에 바치는 전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제주출신 박선후 감독이 전시 연출을 담당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 문의 064)756-4325. 전선희기자

옛 관문 화북포구에서 유배문화 체험

이달 27~28일 유배문화제
전시·음식 체험·공연 다채

유배인들이 드나들던 제주의 옛 관문 화북포구에서 유배문화를 살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제주시 화북동에서 화북동축제위원회와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후원으로

이달 27~28일 '화북 유배문화로 역사를 품다'란 이름 아래 펼쳐지는 2019제주화북유배문화제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스토리로 전하는 제주유배이야기'를 주제로 4개의 전시장을 꾸민다. 제주로 유배온 인물대비의 모친인 노씨가 제주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었던 술인 대비모주, 추사 김정희의 유배

밥상 등 유배 음식 전시와 체험도 이루어진다. 제주한라대 호텔조리학과 오영주 교수 등이 음식 개발을 맡았다.

제5회 옛길 따라 걸을라 행사와 연계한 화북 유적지 탐사 트레킹도 마련된다. 해신사, 화북진성, 별도연대, 별도환해장성, 삼사석, 김씨와가, 비석거리, 곤을동 등을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돌아본다.

극단 세이레는 추사의 유배 일기를 연극으로 제작한 '다시 추사를 만

나다'를 공연한다. 화북포구를 배경으로 연극 '배비장전'도 올린다. 어린이 해신제 체험도 준비됐다.

추사 제한도 탁본, 바닷잡이, 어린이 별도 연대 체험, 예술연 전시, 활쏘기 체험 등은 상설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화북포구 특별무대에서는 탐나라 난타, 코리아넵시사운드 소리깨매, 국악단 가향, 우리 동네 버스킹, '굴든실버' 공연이 잇따른다. 문의 064)752-4547.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간담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첨단로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100여원을 투입해 리모델링되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의 바람직한 조성 방향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복합문화공간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이달 26일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진다. 문의 02)6160-6700.

이호테우해변 뮤지컬 극장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카페 이호동' 앞마당에서 이달 28일 오후 5시 '앞마당 뮤지컬 극장'이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앞마당 뮤지컬 극장'은 미국 뉴욕 등에서 활동해온 이보미 작곡가의 뮤지컬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서승원, 한규정, 김인형, 지세롬, 이로운이 출연한다. 공연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행사장 주변 돌담에서 '감성 오르 마켓'이 열린다. 플리마켓 수익금 일부는 제주 바다 살리기 환경 보존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문의 010-2591-5560.

김정숙 개인전 '삶의 스케치'

비바아르테작가회 김정숙 회장이 '삶의 스케치'란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엔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 등을 표현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 가을 제주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풍경을 그린 '굴항기를 찾아서', 곡식과 생명을 담으며 한 가족의 삶을 지켜왔던 '향아리', 청아하게 피어오른 '선림사 연꽃' 등 20점이 넘는다. 김정숙 회장은 "저마다 간직하고 있을 삶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달 30일까지 한라도서관 기획전시실. 문의 010-2698-0037.

이중섭예술제 내달 19일 연기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지회장 윤봉택)가 태풍으로 연기했던 제22회 이중섭예술제를 10월 19일로 변경해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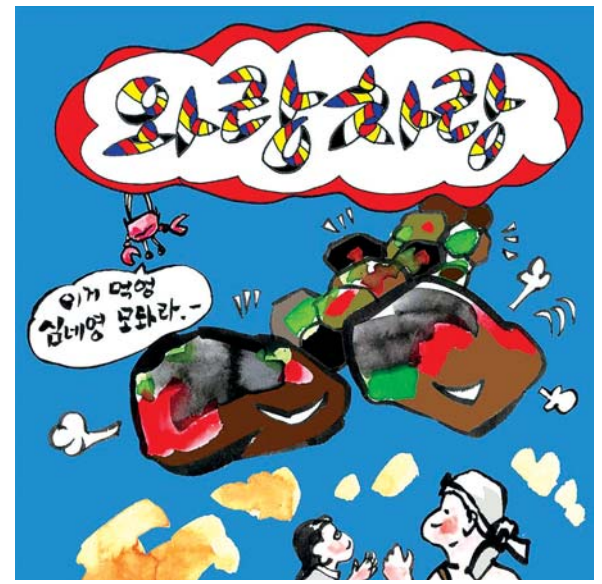
이번 예술제는 지역예술인 거리퍼포먼스, 서귀포예총 회원단체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전도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도 마련된다. 10월 18일까지 이메일(taek5015@hanmail.net), 팩스(064-739-3286) 등으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는 당일 낮 12시까지 가능하다. 화지는 오전 10시부터 현장에서 배부된다. 문의 064)739-3287.

고재만의

제주어기담판

<171>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옹맹이, "예-누님! 하르바님이 불른 '흑룡이 팬안' 이렇 혼 놀레
어떻 잘 들어집대강?"
좀네가 곤기를, "어-기여, 하르바님이 불른 놀레 잘도 좋아라. 죽은 바위
덜이 '흑룡이 팬안' 놀레 따문 큰큰하 바위산을 수월하게 맹글아질거라.
하르바지가 곤는다. "야네덜야 흑룡이 생각하 놀렐 죽은 바위덜이
와랑차랑, 와랑차랑 불렸고 바당 소꿉인 느나웃이 돈덜 큰큰하 바위산을
맹글 죽은 바위덜을 모람져. 어른 바린 두린 바위신디 중석 흑솔먹으멍
흑렐하난 두린 건 '아이고 고맙수다.' 흑명 주꿉디 신 흑폼 더 두린
바위신디 '야- 이거 먹영 심내영 모되라.' 흑엿주.

* 제주어 풀이

*흑룡이 '팬안' 이렇 혼 : 흑룡의 '팬안'이라고 하는.
*좀네가 곤기를 : 좀네가 말하기를. *하르바지가 곤는다 : 할아버지가 말한다.
*와랑차랑(와라차라, 와랑차랑, 와랑차랑) : <어제>큰 규모로
함차게 흥얼거리며 흥겹게 진행되는 꼴. *바위덜을 모람져 : 바위들을 모은다.
*중석(고비리, 제꾸름, 갯꾸름, 첫꾸름) : <이름>주로 밤을 쉴 때나 일을 할 때
간식으로 제공되는 음식. 겔두리.
*주꿉디 신 흑폼 더 두린 바위 : 옆에 있는 더 어린 바위.
*이거 먹영 심내영 모되라 : 이거 먹고 힘내서 모으라.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음직>:/음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름>:/대어
름씨(대명사)/<뽕>:/뽕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도>:/도씨(조사)/<때>:/때씨(조사)/<의은말>:/의은말/<속
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1991)

사랑의 향기 담아 첫 제주가톨릭서예전

가톨릭이란 신앙 아래 서예가들이 모인다. 10월 한달 동안 한라도서관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제주가톨릭서예가회(지도신부 김석순, 회장 박민자) 창립전이다.

'사랑의 향기를 담아'란 제목이 달린 이 전시에는 김영미 김희열 박민자 송근실 정기봉 조용옥 최혜정 등 7인의 서예가가 참여해 2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제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서예가들로 한글, 한문 서예 등으로 신앙인의 마음을 나눈다.

박민자 제주가톨릭서예가회장은 "끊임없는 기도와 열망 끝에 창립전을 열게 되었다"며 "예술혼을 승화시



김영미의 '면형무아(麵形無我)'.

킨 작품으로 주님을 통해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문의 010-2695-0607. 전선희기자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과수원, 밭, 유류부지 소유자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